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Self-Publishing Repository for the Personal Digital Records

추 기 숙(Ki Sook Chu)*

남 영 준(Young Joon Nam)**

〈 목 차 〉

I. 서론	2. 전자출판 시장 현황
II. 기관 리포지토리 시스템	IV.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모형(안) 및 운영 프로세스
1. 기관 리포지토리의 개념	1.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기관 리포지토리의 현황	2. 구축 모형과 운영 프로세스
3. DSpace 시스템과 국내 적용사례	V. 결론
III. 개인기록의 전자출판 현황	
1. 전자출판의 개념 및 플랫폼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모형(안)과 운영 모델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운영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1) DSpace 기반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운영 주체,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와 검토,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의 리포지토리 활성화 방안, 저작권 문제, 개발 및 보급 과정, 법적인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한다. 2) 리포지토리 모형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생산자 중심의 순환구조로 구축한다. 3) 여러 기관이 연계한 리포지토리 모형을 통해 콘텐츠 배포와 키워드 검색, 사용 통계, 추천 시스템, 오픈 액세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 이용자와 포털업체, 전자출판사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키워드: 개인기록물, 개인기록 전자출판, 셀프 퍼블리싱,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리포지토리 구축 모형, 리포지토리 운영 프로세스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for constructing a producer-centered self-publishing repository for the personal digital records and three operational proces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operational model. 1) As essential requirements for constructing a DSpace-based self-publishing repository, we propose producer-centered service provision, management subject,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 how to activate the repository of digital personal records producers, copyright issue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process. 2) The repository model constructs a producer-centered circular structure considering these requirements. 3) Through a repository model with multiple agencies, it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content distribution, keyword search, usage statistics, recommendation system, and open access to portal users and electronic publishers as well as individual users.

Keywords: Personal records, Digital-publishing of personal records, Self-publishing, Digital-publishing repository, Repository build Model, Repository operation process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박사과정(jullia4022@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교수(namyj@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7년 11월 16일 •최초심사: 2017년 11월 25일 •게재확정: 2017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351-374, 2017. [http://dx.doi.org/10.16981/kliiss.48.201712.351]

I. 서론

전자매체가 등장한 이래 빠른 속도로 전자책, 전자잡지, 디지털 도서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출판이 활성화되었고, 개인 단위 기록에 대한 접근성 또한 증가하였다. 미국의 아마존, 반즈 앤 노블, 애플사의 영향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은 국내외 출판사와 통신사, 망중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자책 분야의 발전은 개인의 기록 욕구와 맞물려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였다. 개인 기록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전자출판 분야에서는 개인기록의 출판에 관한 독립출판, 이북(E-Book), 전자출판, 1인 출판사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록 생산자가 곧 저자가 되는 기록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자출판에서 개인은 가장 작은 단위의 기록 생산자인 동시에 기록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이 소장 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출판하는 것은 출판사의 선정과 금전적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제한요소는 ICT의 발전과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해 누구나라도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나 주장을 디지털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출판 혹은 웹출판은 개인의 공간에 대한 항구성 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의 자료들은 영구보존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되었다. 특히 개인이 웹으로 출판한 자료는 물리적으로 사본의 존재가능성이 인쇄자료에 비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는 태생적 디지털자원(born digital)이기 때문에 종이와 같은 물리적 매체에 기록하여 업로드하지 않고 디지털 형태로 출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로드한 공간의 폐쇄 혹은 업로드 자료의 부주의한 삭제는 해당 자료의 완전한 망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출판된 디지털 개인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배포·보존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록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자출판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기록의 안정적 생산과 출판, 유통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이의 실제적 구성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개인기록 확장이라는 현 사회의 특징에 주목해 전자출판에 대한 리포지토리 모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전자출판의 개념과 현황, 개인기록 전자출판의 필요성, 기관 리포지토리의 개념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실제 개인기록 전자출판에 관한 플랫폼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개인기록 전자출판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출판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하나로 출판사 리포지토리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개인기록의 전자출판 현황 및 필요성

1. 전자출판의 개념 및 현황

전통적인 인쇄 출판물은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출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김성재 2004). 현대사회에서 출판은 저작물을 종이 인쇄뿐만 아니라 전자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독자에게 출판물의 내용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전자출판이라는 용어는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화로 인하여 등장하였고, 그 정의는 1980년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에 전자출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규정되었다. 하지만 실제 전자출판이 상용화된 시기는 전자출판에 관한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법규가 개정된 2000년대부터이다.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1999년 오픈 이북 출판 구조(Open eBook Publication Structure; OeBPS)를 대중에게 무료 표준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7년 개정된 ePUB 2가 공개되었고, 2011년 ePUB 3가 개발되었으며, 현재 IDPF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신 버전은 2017년 개정된 ePUB 3.1이다. 구체적으로 ePUB은 Web에 기반을 둔 전자출판 및 전자문서를 위한 교환 및 배포 형식 표준으로, 이용자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하나의 전자 출판물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국내에서는 1992년도에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설립되었지만, 실제 국내에서 전자출판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2000년대에 이르러 상용화되기 시작한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기기와 전자출판 관련 표준과 법제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은 2008년 인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따로 제정하여 법제 명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으로 변경하였다. 출판법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로 정의한다. 전자출판물은 CD, DVD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과 웹상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의 비중이 높았지만, 현재는 이북 등의 형태로 된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스마트폰이나 패드, 이북 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웹으로 검색하고 내려 받거나, 웹상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이다.

이 밖에 전자출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록 환경 변화 중 하나는 무료 전자출판 플랫폼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개인이 곧 출판의 당사자가 되는 기록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4호)

것이다. 오픈 액세스 환경에서 디지털 개인기록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수많은 이용자와 공유함으로써,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식이나 감정 등과 같은 개인 기록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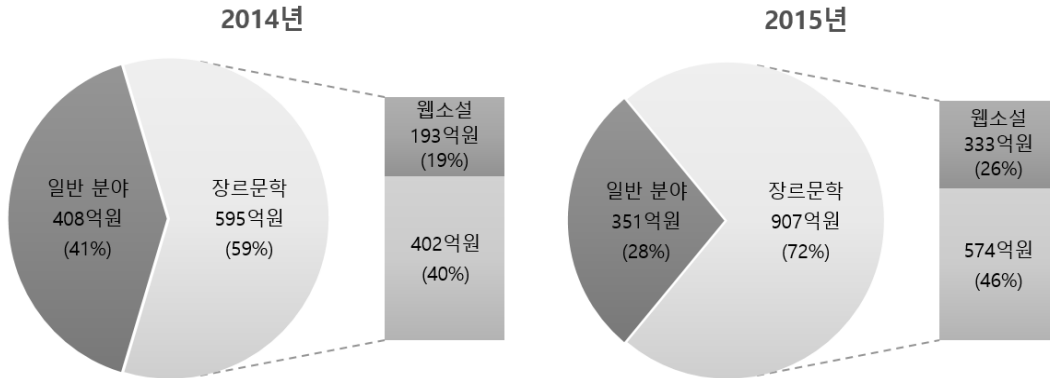
전자출판에 관련된 시장은 전자책 관련 기기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점차 그 크기를 늘려나가고 있다. 국외의 아마존은 킨들(Kindle)이라는 자체 제작 전자책 기기를 1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하여 아마존 전자책 시장을 늘려나가고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와 유통망을 활용하여 전자책 유통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전자책 시장은 대형 전자책 유통 업체의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전자책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출판산업 통계인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만든 차트이다.



<그림 1> 2013-2015년 출판산업 매출액(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데이터 재구성)

국내의 전자책유통사업체의 출판산업 매출은 2013년 891억 원에서 2014년 1,004억 원으로 약 12.7% 증가하였고, 2015년 1,25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5.4%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 출판사업체의 매출은 2013년 4조 3,203억 원에서 2015년 4조 278억 원으로 약 6.7% 감소하였고, 출판유통사업체의 매출은 2013년 3조 5,519억 원에서 2015년 3조 4,360억 원으로 약 3.26%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전자출판의 비중은 전체 출판산업 매출의 1.6%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3년 전체 출판산업 매출액 대비 전자출판의 비중은 1.12%였고, 2014년 전자출판의 비중은 1.27%, 2015년은 1.6%로 전자출판산업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책 유통사업체의 출판산업 매출이 증가한 것을 출판사업체와 출판유통사업체의 출판산업 매출이 2013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전자 출판 산업 부흥 가능성은 크다.



<그림 2> 2014-2015년의 전자책 시장규모(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데이터 재구성)

구체적인 유통사 기준 전자책 시장 규모는 <그림 2>와 같이 일반 분야와 장르문학으로 구분되는데, 웹 소설을 포함한 장르문학이 전자책 시장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전자책 시장규모의 59%(595억 원)에 해당하던 장르문학은 2015년 전자책 시장규모의 72%(907억 원)를 차지하며, 매출 부분에서는 2014년 대비 52.4%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 분야는 2014년 전자책 시장 규모의 41%(408억 원)를 차지했지만, 2015년 28%(351억 원)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고, 전체 매출에서도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전자책 시장이 주로 장르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분야와 장르문학의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 규모의 확대로 짐작할 수 있듯이 전체 전자출판 발간물의 수도 증가하였다. 한 출판사 당 제작하는 전자출판 종수는 2013년 기준으로 29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42종으로 약 44.8% 증가하였다. 형태별 매출 비중은 텍스트 전자책이 90.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터랙티브 및 멀티미디어 형태가 5.5%, 오디오북 형태가 2.3%의 비중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전체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시 매출 비중의 10%를 차지하는 비텍스트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책 출판사와 전자책 유통사에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장 활성화 방안은 많은 콘텐츠를 수집하는 데 있는데, 단순히 많은 콘텐츠보다는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가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전자책 출판사와 유통사에서 생각하는 여러 전자책 매출 증가 방법 중 첫 번째는 무료 콘텐츠(미리보기)이다.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전자책 중 일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전자책 출판사 및 유통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저자와 장르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다.

전자출판은 기존 인쇄출판에 비해 제작 및 배포에 요구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보존의 반영구성 및 저장 공간 축소 등의 부차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정이나 편집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전자출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제작·유통 경로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누구나 출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개인기록의 유형 및 전자출판의 필요성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개인기록은 ‘출판’된 형태의 ‘디지털’ ‘개인기록’이다. 이를 위해 ‘개인기록’을 민간기록의 일부로 민간기록과 함께 정의한다. 민간기록은 개인기록을 포함하지만 민간기록이 개인기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록이라는 용어가 처음 법률에 등장한 것은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다. 1999년 제정 당시에는 ‘민간기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2006년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으로 제10장에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부분이 추가되었다. 현재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법령은 공공기록물법을 기본으로 하고, 이 밖에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한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가 존재한다. 관련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간기록을 살펴보면 『공공기록물법』 제 43조 1항에서는 민간기록물을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

법률 이외의 민간기록에 관한 연구에서는 민간 기록을 비(憑) 정부 기관의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 즉 중앙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부서와 같은 공공영역 이외에 속하는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한 기록으로 정의하며 private records로 번역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111; 김지현 2014).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 개념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에 있을 뿐, 민간기록과 공공기록 모두 일반적으로 법에서 명시하는 기록물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육혜인, 김용, 장준갑 2015). 세부적으로 민간기록의 유형 부문에서 민간기록물은 그 형식이나 내용, 물리적인 형태에 관계없이 민간에서 생산되거나 보유 중인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다(김상호 2007). 개인 기록은 개인이 개인 업무나 개인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기록으로서, 일기나 메모, 편지, 취미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이 이에 속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17). 민간기록물은 개인기록 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자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보면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연구기록 또한 민간기록물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기록의 유형을 개인이 생산·취득한 개인기록과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단체기록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기록은 개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관로 한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기록 중에서도 ‘디지털’ 형식의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 또는 디지털화 기록은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접근성 부분과 전자적인 검색을 통한 활용성 부분에서 물리적 기록에 비해 용이한 장점을 갖는다. 또한 개인기록을 전자적으로 출판할 경우, 비교적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며 단순한 문자 형식에서 벗어나 텍스트의 내용에 적합한 이미지나 오디오 등의 매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개인기록 중에서 ‘출판’된 형식만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 및 배포한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전승하려고 노력하였다. 현대에서는 이를 표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자출판이 활용되면서 전자출판을 통해 개인이 직접 기록을 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구조화되지 못하였고 중요한 자료와 아닌 것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출판된 개인기록은 출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최소한의 구조화를 성취할 수 있다. 여기서 출판은 기록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와 그 맥락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기록의 구조화란 기록 자체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 아닌 기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관리 및 활용에 용이하게 서술하기 때문이다. 출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기록의 구조화는 기록 자체 특성을 구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구조화하는 편집과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개인기록은 출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기록이 가진 특성을 내용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내용 자체가 구조화된다. 이러한 개념을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 플랫폼에서 다루는 기록은 개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관 중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며,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구조화된 형식을 지닌 기록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인기록은 그 범위에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관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로 출판하는 개인기록의 범위는 내용적으로 구조화된 출판 형식이기만 한다면 그 유형 면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인 전자출판의 유형과 동일하게 소설과 에세이 등의 개인 창작글도 포함하며, 기타 사진집과 영상 파일도 내용적으로 구조화되었을 경우 통합플랫폼 대상 기록에 포함된다.

개인기록을 전자출판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가질 수 있는 있는 이점은 첫째, 개인기록에 대한 활용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기록은 구조화를 통해 기록의 특성을 중심으로 검색 및 활용이 시작되며, 일반적인 활용 대상이 연구자로 한정적이다. 하지만 개인기록을 전자출판 형식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구조화를 할 경우 일반인도 접근 및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기록이 제공된다는 부분, 즉 이용도 증대 부분에서 출판 형식이 의미를 지닌다.

둘째, 전자출판 형식의 개인기록은 개별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개인기록에 비해 관리 및 보존 면에서 유용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기록을 관리하고 이용을 위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기

록에 대한 특성이 정의되어야 하고, 연계된 기록 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기록들 간의 연관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기증 받을 경우 그 기록이 구조화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기록을 기록관에서 수집할 경우 관리자는 기록의 구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장 기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록생산자가 직접 기록을 구조화할 경우 비용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록 의미 부여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기관 리포지토리의 개념 및 현황

리포지토리는 대학이나 기관 등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생산한 디지털 자료를 관리 및 배포하는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로(Lynch 2003), 디지털 자료의 관리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학술 콘텐츠를 수집·배포하는 기능을 갖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일반적인 기록관과는 달리 리포지토리는 온라인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만 리포지토리에서 수집하고 있다. 리포지토리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픈 액세스 운동의 영향을 받아 활성화되었다. 2004년 7월 영국 의회의 과학·기술 위원회는 오픈 액세스 개념의 연상선 상에서 공적인 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그 성과를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리포지토리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리포지토리는 적용하는 분야 및 목적에 따라 교육 리포지토리와 기관별 리포지토리, 지식 리포지토리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는 기관 리포지토리 분야이다(이종덕, 신규용, 유진철 2013). 기관 리포지토리는 기관에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보존·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아카이브 시스템이다(장우권, 광병희, 김현희 2005). 많은 기관 리포지토리는 논문 등의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학술기관 리포지토리의 대상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다(Lynch 2003). 지식 리포지토리라는 이름으로 구축되기도 하는데, 지식 리포지토리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문헌 등의 온라인 컴퓨터 기반 지식 창고를 의미하며 지식 리포지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식이 수집·요약·통합되어야 한다(Beckman, Beckman, and Liebowitz 1998). 즉, 지식 리포지토리는 기관 리포지토리의 개념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의로 볼 수 있다.

구축된 기관 리포지토리는 주최 기관의 지적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며, 콘텐츠의 내용은 학술적이어야 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자료를 장기간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기관의 지적 산출물을 배포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Dora and Maharana 2008). 간단히 말하자면 리포지토리는 지적 자산을 분배하고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술정보 유통 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하여 기관 리포지토리는 기존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체 모델 역할을 수행하며(남영준 외 2002), 이용자들은 리포지토리를 이용하여 연구 성과에 정확·안전·신속하게 접근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장우권, 광병희, 김현희 2005). 각 기관에서 리포지토리를 구축하면 기관 내에서 생산된 학술 정보나 기록물을 쉽게 배포할 수 있고, 학술 정보의 수집 및 배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학술 저널의 시스템적 문제 해결이 쉬워지며, 학술 정보의 장기적인 보존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기관 리포지토리는 일반적으로 DSpace와 SHERPA 등의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다. 전 세계 기관 리포지토리가 사용하는 시스템현황은 Repository66.org Repository Map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 등록소인 ROAR(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과 학술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 디렉토리인 OpenDOAR(Open 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에서 2014년 5월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구글 맵과 연동하여 제공한다. University of Auckland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분포된 3,045개 리포지토리의 위치를 간단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 리포지토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1,225개의 기관 리포지토리에서 DSpac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SHERPA의 ePrints를 사용하는 기관 리포지토리는 468개 기관이다.

웹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의 리포지토리는 22개로 Science Attic이라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리포지토리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DSpace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repository66에서는 특정 시스템으로 명시되지 않은 리포지토리의 경우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부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ROAR과 OpenDOAR를 참조해야 정확한 국가별 리포지토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ROAR에는 국내 리포지토리를 46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8개의 중복 기재된 리포지토리를 제외하면 총 38개 기관을 연계하고 있다. 이 중 Science Attic을 제외한 모든 기관 리포지토리가 DSpace를 사용하고 있다. OpenDOAR에서는 총 34개 기관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중 6개 기관의 시스템을 특정할 수 없고, 나머지 28개 기관은 DSpace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외국의 리포지토리도 달리, 국내 기관 리포지토리는 정부 차원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구축되었다. 오픈 액세스의 목적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고 접근하는 것이었다면, 국내의 리포지토리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연구 성과물을 국가적으로 연계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닌다는 점에서

국의 리포지토리와 차이가 존재한다. 많은 국내 리포지토리 구축은 정부에서 먼저 사업의 추진 기관을 선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를 회원 기관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국내에서 구축된 기관 리포지토리의 대부분은 KERIS의 dCollection 혹은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이은주 2016). 국내 리포지토리는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므로 DSpace와 연계되어 구축될 수밖에 없다.

기관 리포지토리를 적용하여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를 구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개인 기록의 확장을 통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 전자출판 리포지토리가 구축되면 기록의 주체이자 생산자인 개인은 자신의 콘텐츠에 적합한 출판사를 찾을 수 있고, 디지털 개인 기록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우에는 저자가 출판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둘째, 이북의 콘텐츠 원문 구축 및 아카이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세한 독립출판사, 1인 출판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자료 전시를 통해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에 접근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개인화된 일상의 기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넷째,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침체된 출판 시장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Ⅲ. 개인기록 전자출판 제작 플랫폼 분석

1. 국내

개인기록 전자출판은 저자가 직접 출판하는 셀프 퍼블리싱(Self-Publishing)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많은 기관에서 제작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기록을 출판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이미 존재하는 플랫폼과 원고를 활용하여 ePUB 형식의 전자책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인터파크와 교보문고와 같은 전통적인 종이책 유통 업체, SK나 KT와 같은 전자통신 업체,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사 등에서 전자출판을 독려하는 제작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현재는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고 전자책 유통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책 유통 플랫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전자책 제작 및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축소된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2010년 3월 ‘텍스토어’라고 하는 전자책 서점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1년 만에 서비스 가능한 전자책 수가 100만권을 돌파하였으며, 일반적인 전자책 유통 업체와 달리 신문과 잡지도 서비스하였다. 자체 전자책 제작 플랫폼을 제공하여 블로거나 일반인이 자유롭게 전자책을 제작하여 저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텍스토어와 전자책 제작 플랫폼 모두 더 이상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SK플래닛에서는 2012년 작가 및 출판사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Trade All Books’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출판방법부터 판매 및 정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망라하여 서비스 하였다.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출판사와 연계하여 표지디자인 및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개인이 제작한 전자책은 SK의 인증을 거친 뒤 T store에서 판매되었지만,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은 제공하지 않고 One Store를 통한 전자책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

KT는 2012년 디지털 잡지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 ‘올레팝’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였다.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보다는 매거진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며,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광고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구모니카 2012a). 현재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인터파크는 북씨(Bucci)라는 전자출판 플랫폼에서 제작된 이북의 판매대행을 맡는다. 북씨는 마이디팻이라는 출판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웹페이지로, 일반회원이나 기업회원이 자유로운 주제의 순수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북씨에서 제공하고 있는 ePUB 전자책 저작툴은 비스킷 메이커(biscuit maker)로 저작자는 목차, 머리말, 표지 등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책은 마이디팻의 검수를 완료한 후 ebook으로 등록하고, 인터파크에서 판매대행을 맡아 제공된다. 하지만 2015년 11월부터 ISBN 발급 문제로 신규 상품 등록은 받지 않고 신간 업데이트를 중단하였다. 최종적으로 2017년 9월 30일부터 북씨 사이트는 잠정적으로 폐쇄되었다. 북씨로 제작·판매된 전자책은 인터파크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전자책 제작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교보문고의 퍼플(PubPle)이 있다. 교보문고는 퍼플로 불리는 전자출판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자책을 주문이 들어오면 종이책으로 인쇄하여 발송하는 POD(Publish On Demand)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퍼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작가로 등록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야 전자책을 만들 수 있으며, 작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보문고에 가입 후 추가로 정산금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퍼플 에디터와 퍼플 템플릿을 제공하여 1인 출판을 돕고 있는데, 실제 북 만들기 페이지에서는 pdf로 변환한 파일 또는 이미 존재하는 ePUB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퍼플 에디터를 활용해 ePUB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교보문고의 퍼플은 개인이 작성한 원고를 바로 출판하여 교보문고 유통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전자책의 제작 및 유통을 대행하는 셀프 퍼블리싱 에이전시 중 일부에서도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을 제공한다. 셀프 퍼블리싱 에이전시는 분야를 막론하고 원고를 가진 저자들을 대상으로 정산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에이전시에서 원고에 기반을 두

고 수정, 디자인, 구성 작업을 한 후 최종 완성한 이북을 국내 주요 전자책 서점에 출판하는 과정을 대행한다. 즉, 셀프 퍼블리싱 에이전시를 통해 판매되는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책 출판사의 출판 방식과 동일하게 원고를 마감하고 이루어진다. 셀프 퍼블리싱 에이전시 중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유페이퍼(upaper)가 있다.

유페이퍼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이지웍 에디터 방식과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전자책 출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유페이퍼 웹 에디터는 직접 에디터로 전자책을 만들거나 기존의 ePUB 또는 pdf 파일을 등록할 수 있게 하였고, 에디터 자체에 ePUB 적합성 검사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전자책 제작 자체는 판매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생성 가능하며, 전자책 생성 시 전자책 기본정보(제목, 저자, 출간일자, 카테고리, 전자책 소개, 저자 소개)와 표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책을 생성한 후 ePUB 파일을 편집하는데, 워드나 한글문서에서 붙여넣기 할 수 있다. 자주 쓰는 제목, 본문, 문단 스타일을 등록해 저장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소스 편집을 이용한 태그 수정이 가능하다. 웹 에디터 사용은 판매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이용자가 무료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으나 유페이퍼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로 전환해야 하고, 실제 등록된 전자책 파일은 판매제휴사를 통해 서비스된다.

2. 국외

국외의 대표적인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으로는 아마존의 Create-Space와 반스앤노블(Barnes&Noble)의 Nook Press가 있다. 아마존은 이미 구축되어 있던 자사의 유통망과 고객층을 기반으로 2007년 킨들(Kindle)이라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전자책 시장의 부흥을 이끌었다. 교보문고과 비슷한 POD 서비스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 1위의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이 되었다. 처음으로 출판을 하는 저자들에게 도서 가격 결정이나 홍보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자 친화적’ 플랫폼으로 (구모니카 2012a), Create-Space라고 하는 자사의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Create-Space는 전자책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상 제작까지 포함하는 플랫폼으로, 저자들 간의 커뮤니티를 제공해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시킨다.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프린트 버전으로 변환하여 여백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판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자책을 제작하면 자사의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아마존의 Create-Space는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타 플랫폼에서 제작한 ePUB 파일을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문서나 pdf만 수용한다. 또한 아마존만이 유일하게 책 이외 음악과 영화 부분의 셀프 퍼블리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책 부분이 중점이 되는 다른 세 군데 유통

플랫폼과 달리 아마존이 가진 전반적인 쇼핑몰의 역할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로 책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화 VOD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목을 기입하고 책, 오디오, DVD, 비디오 다운로드 중 종류를 선택한다. 시작 방식은 처음 출판하는 사람을 위해 단계별 설명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는 Guided와 이미 출판 과정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Expert 중 선택할 수 있다. Guided 맨 처음 Setup 단계는 Title Information, ISBN, Interior, Cover로 구분되어 있다. Title Information에서 선택해야 하는 언어 항목에서는 영어와 유럽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등의 아시아 언어도 선택할 수 있고, ISBN은 공식적인 숫자 이외에 자사에서 지정하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Interior 단계에서는 표지를 흑백으로 할지 칼라로 할지 여부와 내지 색상, 출판물 크기, 원고 업로딩을 선택할 수 있다. Cover 단계에서는 커버 재질을 선택할 수 있고, 커버를 인터넷에서 직접 만들거나 미리 작성한 PDF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1위 종이책 서점인 반스앤노블도 자사의 자체 제작 전자책 단말기인 Nook와 유통망을 기반으로, 2010년 여름 펍잇(Pubit)이라고 하는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을 런칭하였다. 아마존이나 애플과 달리 종이책 유통 시절의 오프라인 마케팅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구모니카 2012a). 이후 Nook Press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는 전자책 제작뿐만 아니라 종이책 제작 플랫폼으로도 역할하고 있다. 전자책 유통은 반스앤노블과 녹스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만 가능하며, 아마존과 비슷하게 저자들 간의 협력을 통한 전자책 제작이 가능하다. 반스앤노블은 네 곳의 플랫폼 중 제약이 가장 많은 플랫폼으로, 유통업체는 반스앤노블 뿐이고 국가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제한되어 있다. 표지 제작에서도 다른 곳과 달리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작가의 jpg파일 및 png파일만 수용하고 있다.

Nook Press는 가장 먼저 원고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원고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전자책 작업이 시작된다. 이후 Cover Image 단계와 Nook Book Details 단계를 거치는데, Cover는 jpg나 png 파일만 사용할 수 있다. Nook Book Details 단계에서는 제목 등의 서지 사항, 주제, 저작권과 금액을 선택한다. POD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북의 POD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POD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제작 자료 유형을 이북이 아닌 Print로 선택해야 한다.

3. 국내·외 비교

국내·외의 셀프 퍼블리싱 제작 플랫폼을 제공하는 교보문고를 비롯하여 유페이퍼, 아마존, 반스앤노블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국내·외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 비교분석

	교보문고	유페이퍼	Amazon	Barnes&Noble
플랫폼 명칭	PubPle (Publish+People)	웹에다터	Create-Space	Nook Press
제작 자료 유형	전자책	전자책	Book, Music, Film	eBook, Print
Setup 단계	생성, 등록·편집, 정보입력, 완료	기본정보, 파일등록	Title Information, ISBN, Interior, Cover	Manuscript, Cover, Nook Book Details
업로드 원고 형식	pdf, ePUB	pdf, ePUB	pdf, doc, docx, rtf	doc, docx, txt, rtf, html, ePUB
표지 제작	자체제작 / 템플릿	자체제작 / 템플릿	pdf / 유료 서비스 / 템플릿	jpg, png
유료 서비스	프리미엄 출판 패키지 (제작업체 소개)	-	단계별(디자인,첨삭, 리뷰) Professional Service	-
유통 플랫폼 (판매 제휴)	교보문고	전자책서점사(교보문 고, 예스24 등), SKT, KT, LGU+	• 일반 (Amazon) • 확장 (서점, 도서관, 학술기관 등)	Barnes&Noble
이북의 POD 제공 여부	pdf 파일로 작성 시 제공 (양장본 가능)	-	제공 (양장본 불가)	-
국가제한	-	-	-	존재
정산율	판매처별 50~60%, POD는 20%	유페이퍼는 70%, 제휴사는 60%	일반 60%, 확장 40%	금액에 따라 40%, 65%

네 군데 퍼블리싱 플랫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유료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교보문고와 아마존이 있는데, 두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형식에는 차이가 있다. 교보문고는 전체적인 출판을 담당하는 제작업체를 연결만 하고 교보문고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페이퍼도 홈페이지에서 전체 출판을 위탁할 회사의 광고만 제공하고 있다. 반면 아마존은 자사에서 자체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자인과 첨삭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국내와 다른 해외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의 특징은 저자 간 협력에 있다. 국내 플랫폼은 개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저자 간 협력을 위해서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통한 전자책 제작 기능을 두고 있으며, 저자들 간의 커뮤니티도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다.

셋째, 위의 네 군데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은 ePUB 형식의 전자책을 다루고 있으며, 모두 제작부터 유통까지 한 번에 등록 가능한 제작 및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지닌다. 다만 교보문고와 반스앤노블은 유통업체가 제한적인 플랫폼으로, 자사의 판매처에서만 유통된다. 나머지 유페이퍼와 아마존은 자사의 판매처 이외에 다른 제휴사에도 유통한다. 기본적으로 네 플랫폼 모두 판매형식이 국제표준인 ePUB 형식을 따르지만, 교보문고는 ePUB 뿐만

아니라 POD 서비스 제공을 위한 pdf 형식도 출판하고 있다. 교보문고의 pdf 형식은 전자책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아니라 POD로 인쇄 시에만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전자출판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전자책 형식은 ePUB 형식으로, 이를 수집하는 리포지토리에서도 ePUB 형식을 기본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다만, 교보문고에서 수용하고 있는 PDF 버전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표준인 PDF/A 형식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IV.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모형(안)

1. 리포지토리 구축 시 고려사항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 비교 분석 결과 나타난 특징을 반영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전자출판물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즉, 생산자 간의 협력이 가능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ePUB과 PDF/A 형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Space 시스템에 기반을 둔 리포지토리 구축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DSpace에 기반을 두는 이유는 첫째, DSpace는 모든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다. 전자출판에는 SNS, 동영상, 슬라이드,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항목이 포함되는데, DSpace는 자료의 보존 범위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들 자료를 다룰 수 있다. 둘째, DSpace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연계 소프트웨어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리포지토리와의 연계와 자료 공유를 쉽게 할 수 있고,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전자출판 기록의 수집 시 본 연구가 국가적인 통합·관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DSpace는 국내·외 리포지토리 시스템 중 가장 큰 사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나 피드백에 대한 빠른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의 경우 생산자와 이용자, 관리자 모두가 주체가 되는 DSpace 소프트웨어를 그 용도에 맞게 조정하고, DSpace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DSpace 기반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다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이용자 중심의 국내·외 기관 리포지토리와 달리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개인기록의 가치는 무한한 콘텐츠에 있으며, 이 콘텐츠를 통해 생산자는 자신의 기억을 보존하고 순간의 감상을 텍스트로 전환해 개인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교육 및 기관 리포지토리는 기관 내외부의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생산된 기록을 관리·보존·배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용자 중심의 기관 리포지토리에서 생산자는 자료를 생산할 뿐,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관리자에게 있다. 관리자는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리포지토리 설립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한다. 반면 생산자 중심의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에서 관리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가 아닌 전반적인 리포지토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의 수집은 생산자가 직접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외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의 특징인 생산자 간의 협력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의 운영 주체는 출판사 협회 또는 관련 책임을 지닌 단체여야 한다. 리포지토리의 운영 주체는 출판사와 개인기록의 생산자인 저자, 도서관, 관련 정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출판사가 중심이 되어 출판 리포지토리를 구축할 경우, 독자적인 수행은 사실상 어렵다. 방대한 양의 디지털 개인기록 수집부터 기록 생산자의 지식재산권, 이용자를 위한 배포 방식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단독 출판사가 진담하기 어려운 장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인 측면을 지속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출판사 협회나 책임 있는 관리자 혹은 단체에서 운영의 주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생산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들에게 수정, 편집, 삭제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역할 중 일부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 책임 및 운영만을 상위 협회·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으로 운영 주체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은 전반적인 리포지토리의 디자인과 서버 관리, 관리 정책 결정, 이벤트 관리 등의 생산자가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각 출판사는 자신의 출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들과 연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각 출판사의 이용자들이 가진 디지털 개인기록 관리 및 보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전략 토대를 개발해야 한다. 우선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관련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각 출판사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조사와 문헌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개인기록 콘텐츠에 대한 리포지토리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과 이용성,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고,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의 리포지토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는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에 셀프 아카이빙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게 된다. 이때 리포지토리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개인기록의 원문이 게재된 생산자의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함께 링크하거나, 생산자 저작물의 주제나 핵심 키워드

와 유사한 다른 생산자의 저작물의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섯째,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디지털화된 자료나 기록은 복제가 용이하고, 변경이나 삭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개인기록물을 디지털화 할 때, 그 기록의 진본성을 입증하고, 법적,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 받지 않은 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존 기관 리포지토리의 저작권 문제는 제출자가 출판사나 저널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한 후 제출하는 저자 직접 제출 방식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개인기록의 저자가 저작권 문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개인기록을 출판하고자 하는 콘텐츠 생산자는 전자출판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에 자신의 저작물을 기탁하고, 출판협동조합이나 관련 정부부처에서 거버넌스 조직 구성을 통해 생산자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세부적으로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 채택을 통해 저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시하고, 저자들이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에 디지털 개인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여섯째, 개발 및 보급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리포지토리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리포지토리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메타데이터 공유 및 연계, 기술교육, 유지보수,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위한 사이트 구축과 보급, 오픈 소스 방식의 무료 보급의 과정을 거쳐 개발·보급된다. 이를 위해 전문 포털 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 디지털 개인기록 콘텐츠를 수집하고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언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의미 기반 검색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제제가 필요하다. 리포지토리를 구성하는 디지털 개인기록의 생산자들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특히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생산자 중심의 오픈 액세스 환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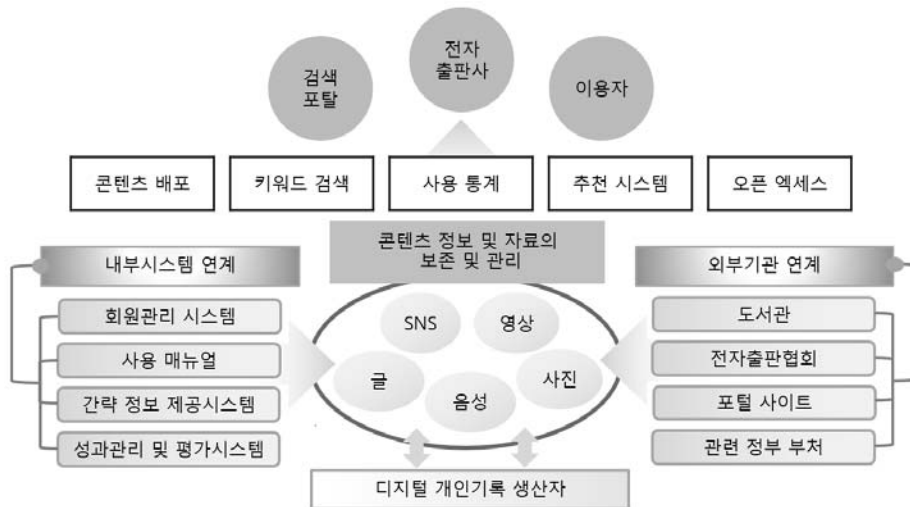
2. 구축 모형(안) 및 운영 프로세스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그림 3>과 같은 생산자 중심의 구축 모형을 제안한다. 구축 모형은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 콘텐츠, 외부 기관 및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창구로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는 전자출판에서 중점이 되는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리포지토리 구축이 이루어진다. 저자는 국내·외의 다양한 전자책 제작 플랫폼을 활용하여 ePUB 형태의 전자책을 제작한다. ePUB은 전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표준이

며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시 기본이 되는 형식이다. 이때 저자가 생산하는 콘텐츠에는 전자책 시장 현황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던 글 이외에도 음성, 영상, 사진, SNS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구성된 콘텐츠 정보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의 중심 기능으로, 이 기능을 중심으로 다른 서비스가 연계된다. 우선 내부시스템과의 연계에서는 회원관리 시스템, 사용 매뉴얼, 간략 정보 제공 시스템,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 등과 연계된다.



〈그림 3〉 생산자 중심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모형(안)

첫 번째로 회원관리 시스템에서는 콘텐츠와 관련된 회원들의 권한을 각 회원의 수준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의 경우 일반적인 DSpace를 활용해 설계된 기관 리포지토리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이용자, 관리자 모두가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생산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리포지토리에서 소장 기록을 구조화하는 것은 관리자의 업무이고, 생산자는 그 기록 자체를 리포지토리에 전달하기만 할 뿐 생산자가 자료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즉, 생산자의 권한은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자 중심의 리포지토리에서는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업무는 관리자가 아닌 생산자만 담당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은 전반적인 시스템 및 서버 관리, 올라온 자료를 활용한 이벤트 제공, 회원 관리 등에 있고 생산자의 권한은 자료의 자유로운 작성과 수정에 있다. 관리자와 생산자의 권한은 배타적인 관계로 관리자는 생산자의 권한인 자료의 수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용자와 생산자의 권한이 동일했던 이용자 중심 리포지토리와 달리, 생산자 중심 리포지토리에서는 이용자와 생산자의 권한을 구분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한은 일반적인 리포지토리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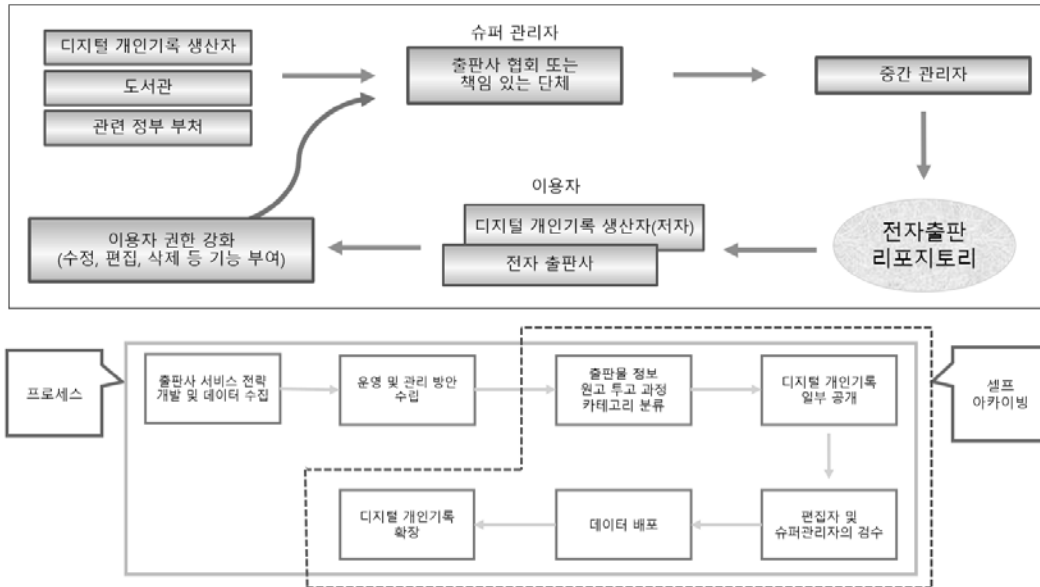
두 번째,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의 경우 관리자가 아닌 생산자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사용 메뉴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KOASAS는 메타데이터 구축을 제출자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균질적인 메타데이터를 재구성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관리자가 자료를 제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가 자료를 올리는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입력방식은 약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업데이트로 인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메타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생산자가 자료를 업로드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용 메뉴얼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용 메뉴얼은 문서로도 제공될 수 있지만 시스템 상에서 업로드 시 단계별로 작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세 번째, 사용 메뉴얼에 기반을 두고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간략 정보 제공시스템과 연계되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관 리포지토리는 동명저자의 자료를 대량으로 소장하고 있을 경우 저자 인명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닌다(Xia 2006).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콘텐츠의 주제나 핵심 키워드 중복으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과 디지털 민간기록 생산자의 인명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자인명이나 출판물 명 검색 시 간략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은 이용자와 생산자, 관리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자와 관리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고 이용자는 관련된 통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도서관, 전자출판협회, 포털 사이트, 관련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되어야 한다. 단일 기관 리포지토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 내부에서 자료를 공유하지만 dCollection과 같이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리포지토리는 참여 기관과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에 자신의 자료를 배포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도 기존의 전자책 출판사 및 유통업체, 관련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과 상호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도서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내부시스템 및 외부기관과 연계되어 콘텐츠 정보 및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하는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콘텐츠 배포, 키워드 검색, 사용 통계, 추천 시스템, 오픈 액세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대상에는 일반적인 리포지토리의 대상과 같은 개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검색포털과 전자출판사도 포함된다. 기관 리포지토리와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공통적으로 리포지토리의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 및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생산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고, 구축 과정과 활용에 다양한 영리기관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림 3>에서 제시한 생산자 중심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의 구축 모형은 다음



〈그림 4〉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운영 프로세스 모형(안)

<그림 4>의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된다.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모형에서 중심은 생산자이다. 운영 프로세스에서도 그 시작은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 또는 기록을 생산하는 기타 도서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된다. 생산자는 디지털 개인기록을 생산하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 정부 부처도 포함한다.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개인기록의 예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구술사 프로젝트 결과로 발생하는 기록을 들 수 있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 발행한 자료는 대부분 도서관 및 정부에 대한 홍보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생산된 자료를 기반으로 슈퍼관리자와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구축 구축된다. 이 때 슈퍼관리자는 리포지토리 구축 시 운영주체로 고려하였던 출판사 협회 또는 책임이 있는 단체이다. 슈퍼관리자의 경우 전체 리포지토리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간관리자는 세부적인 리포지토리 운영에 관한 서비스와 기술적인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저자와 각 출판사는 생산자인 동시에 이용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에서는 이용자로서 생산자에게 수정·편집·삭제 권한을 강화하여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생산자이자 이용자인 개인은 내용의 삭제나 편집 등의 수정 기능을 위해서는 슈퍼관리자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어 리포지토리의 내용의 선순환하는 프로세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운영 방침으로는 먼저 검색 기능을 통해 출판사 서비스 전략 개발 및 데이터를 수집한다. 출판사마다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출판사의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출판사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성격(소설, 에세이, 시, 일기, 과학, 인문 등)과 원고 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운영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출판사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판물 장르와 형태 카테고리 등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정한 후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셀프아카이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셀프 아카이빙 단계에서는 출판물 정보 및 원고 투고 과정 등에 기반을 두어 생산자가 직접 카테고리를 분류 하고, 제작한 전자출판 개인기록의 일부를 공개한다. 편집자 및 슈퍼 관리자는 이를 접수하여 리포지토리에 배포한다. 이러한 검수과정은 무분별한 전자책 제작으로 인한 저품질 전자책 및 스페어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이후 생산자 및 관계자와의 계약에 따라 출판물이 확장되어 리포지토리에서 직접 배포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무료 전자책의 경우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으므로 리포지토리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료 전자책은 다른 기관과 저자 사이의 인세 계약 문제로 리포지토리 자체에서 서비스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유료 전자책의 경우 자료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리포지토리에서 제공하고 실제 전자책은 외부기관과의 연계 기능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론

현대사회는 개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셀프퍼블리싱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든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기록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수집하는 것과 기록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구조화 과정은 개인기록의 가치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셀프퍼블리싱 기록물은 온라인 공간의 보존적 취약성 때문에 빈번하게 소멸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셀프퍼블리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Space에 기반한 생산자 중심의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에 필요한 요소와 운영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을 위해 고려할 7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 ①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이용자 중심의 국내·외 기관 리포지토리과 달리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의 운영 주체는 출판사 협회 또는 관련 책임을 지닌 단체여야 한다.

- ③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 ④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의 리포지토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디지털화된 자료나 기록은 복제가 용이하고, 변경이나 삭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 ⑥ 개발 및 보급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⑦ 법적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생산자 중심으로 모형과 운영프로세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 ① 회원관리 시스템은 콘텐츠와 관련된 회원들의 권한을 각 회원의 수준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전자출판 리포지토리의 경우 관리자가 아닌 생산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용 매뉴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③ 사용 매뉴얼에 기반을 두고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간략 정보 제공시스템과 연계되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④ 전자출판 리포지토리는 도서관, 전자출판협회, 포털 사이트, 관련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생산자 중심의 전자출판 리포지토리가 구축되면 개인의 일상이나 감상, 여행, 개인의 창작물 등과 같은 개인 기록물을 안전하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리포지토리를 통해 전자책 유통업체는 양질의 전자책을 출판하는 저자를 발견하고, 전자책 저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전자책 출판업체를 발견하고, 이용자는 우수한 품질의 전자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모니카. 2012a. 셀프 퍼블리싱(self-publishing) 플랫폼 현황 연구. 『전자출판연구』, 1: 49-63.
- 구모니카. 2012b. 한국 전자책 현황 분석과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소고. 『글로벌 창의 문화연구』, 1: 16-26.
- 김상호. 2007. 민간기록물의 수탁 보존기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6: 197-216.
- 김성재. 2004. 『출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일지사.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남영준, 최응식, 배순자, 김미진, 오지석. 2002.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8: 477-500.
- 육혜인, 김용, 장준갑. 2015. AtoM을 활용한 민간기록물 관리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79-105.
- 이은주. 2016. 국내 기관 리포지토리에서 DSpace 메타데이터 요소의 활용 현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465-487.
- 이종덕, 신규용, 유진철. 2013. 교육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리포지토리 설계 및 구축 방안.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집』, 16(6): 96.
- 장우권, 광병희, 김현희. 2005. 학술기관 리포지토리 현황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67-376.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http://www.kpipa.or.kr/upload/201704/68178.8621229647720170417212536.pdf>> [인용 2017. 9. 25]
- 북씨(Bucci). <<http://www.bucci.co.kr/bucci/bucciMain.do>> [인용 2017. 9. 28]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17. 법률 제14839호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29호
-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329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17. 법률 제14636호
- Beckman, T. J., Beckman, T. and Leibowitz, J. 1998. *Knowledge Organizations: What Every Manager Should Know*. Boca Raion, FL: CRC Press
- Dora, M. and Maharana, B. 2008. *Scholarly Communication through Institutional Repositories*. <<https://core.ac.uk/download/pdf/11889660.pdf>> [cited 2017. 9. 17]
- IDPF Homepage. <<http://idpf.org/>> [cited 2017. 9. 27]
- Lynch, C. A. 2003. "Institutional Repositories: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ARL Bimonthly Report*, 1-7.
- Repository66.org Repository Maps. <<http://maps.repository66.org/>> [cited 2017. 9. 17]
- Xia, Y. 2006. "Asymptotic distributions for two estimators of the single-index model." *Econometric Theory*, 22: 1112-1137.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Wookwon., Kwak, ByeongHeui. and Kim, Hyunhee. 2005. The Status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Academy Reposit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7-376.
- Gu, Monica. 2012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Self-Publishing Platform. *Studies of Korean Science*, 1: 49-63.
- Gu, Monica. 2012b.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E-Book Market & Searching for Inducement Plan in Korea. *Glocal Creative Industry Research & Evaluation Center*, 1: 16-26.
- Kim, Jihyun. 2014. An Analysis of Policies on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t State/Provincial Archives in the U. S.,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3): 105-126.
- Kim, Sangho. 2007. A Study on the Depository Archives of Private Record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36: 197-216.
- Kim, Seongjae. 2004. *The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ation*. Seoul: Ilgisa.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Glossary of record terminology*. Seoul: Yeogsa-Bipyongsas.
- Lee, Eunju. 2016. The Uses of DSpace Metadata Elements in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465-487.
- Lee, Jongdeog., Shin, Kyuyon. and Yoo, Jincheol. 2013.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pository for Archiving Educational Resource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6(6): 96.
- Nam, Youngjoon., Choi, Eunshik., Bae, Soonja. and Kim, Mijin. 2002. Study on the change of information service of university library in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Social Science Publications*, 18: 477-500.
- Yuk, Hyein., Kim, Yong and Jang, Junkab. 2015. A Study on the Methods to Manage Private Records Utilizing AtoM (Access to Memo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79-105.